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20

우주관의 변천

기원전 6세기 회람의 탈레스는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달은 햇빛을 받아 반사한다고 했고, 피타고라스는 원과 구의 조화사상에 따라 천체들은 각기 구에 붙어 회전한다고 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에서 달까지 이르는 지상계는 흙, 물, 불, 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불완전한 세계이고, 달 밖의 천상계는 제5원소인 하늘로 이루어진 영구불변의 완전한 세계로 보았다. 이러한 우주관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과학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지탱해 왔다. 한편 140년경 프톨레미는 실제로 행성의 운동을 관측하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천동설이 중세 암흑시기에는 일종의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어느 누구도 이에 반대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었다. 그러나 1530년경 수학에 뛰어남 코페르니쿠스는 과거의 천체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한다는 지동설을 제창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까지 믿어왔던 원의 조화사상에 따라 모든 행성은 원 궤도를 돈다고 보았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새로운 과학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1600년경 케플러는 화성의 운동에 관한 과거의 자료분석과 관측에서 행성들은 타원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로 돌며, 그리고 궤도 크기와 공전 주기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행성운동에 관한 3가지 경험 법칙을 내놓았다. 이러한 케플러의 경험법칙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면서 만유 인력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17세기 뉴턴이다. 뉴턴의 이론에 심취했던 철학자 칸트는 태양계의 생성에 관한 선운설을 제안했다. 18세기 후반부터 큰 망원경이 건설되면서 인간의 세계관은 태양계의 세계를 벗어나 별의 세계로 확장됐다. 수많은 별들의 거리를 관측함으로써 2차원적 항성의 세계관이 3차원적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인간의 경험세계는 100억 광년을 넘어서는 넓은 4차원의 세계로 확장되면서 중성자별, 블랙홀, 퀘이사 같은 새로운 천체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지상관측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공위성을 통

한 현지탐사는 정밀한 다량의 정보 수집에 관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인간의 경험 세계가 17세기까지는 좁은 태양계의 세계에 국한됐고, 18세기부터는 별의 세계로, 그리고 19세기에는 더 넓은 은하의 세계로 확장됐다. 그러다가 측정기의 개발과 정밀성의 향상으로 20세기 들어 다양한 천체와 더 먼 과거의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오늘날의 4차원적 우주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우주관이나 프톨레미의 지구 중심적 우주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태양→별→은하→4차원 세계

경전내용 해석 · 실천방법

2000년전 옛방식 고집 말고

現代人 인생관에 맞추어야

로운 인식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시골에서 살며 보고 놀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전혀 다른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인생관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우주관도 이와 같은 이치로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그렇다면 불법이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든 또는 인간 위주의 도덕적, 종교적 내용을 나타내든 그 내용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시간과 공간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경전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법 때문이 아닐까? 즉 현대인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무시하고 과거 2000년 전의 옛 방식을 고집하며 이러한 틀에 따라 해석하고 수행토록 한다면 이것은 경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과 같을 것이며, 어떤 분야의 구체적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현대적 슬어를 마구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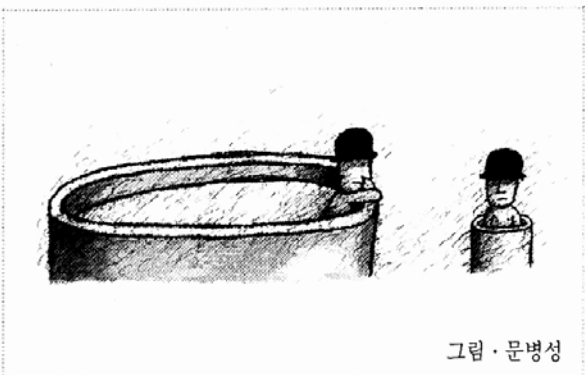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며 거리낌 없이 경전을 재해석하는 것도 매우 그릇된 처사일 것이다. 새로운 세계관과 우주관의 습득은 새로운 세계와 우주라는 곳에 빠져 물을 실컷 먹어보고 난 후에야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연구나 소문에 의존해서 간단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바가바드기타는 불교와 많은 유사점을 가졌으며 거기에서 우주관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당신은 맨 처음이요, 한 옛것의 으뜸되는 신이시며 이 온 우주의 궁극의 실 곳입니다. 당신은 아시는 이요, 또 알려질 것이며 그 모든 것의 돌아갈 곳입니다. 끝이 없는 형상을 가지신 이여, 당신으로 이 우주는 꿰뚫어 있습니다. ...만 유밖에 계시면서 또 그 안에 계시고, 부동하면서 또 움직이시다.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멀리 서서 면서도 그는 가까이 계시다." 기원전 3세기 전에 나온 이 글은 시대에 따라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천주대 천문학과 교수

임제가 아래 선방에서 앉아 즐기고 있는데 황벽이 내려와 보고는 주장자로 선판(禪板)을 한 번 쳤다. 임제가 머리를 들어 황벽을 보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황벽은 또 선판을 한번 치고는 뒷 선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수좌가 좌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랫 칸의 후생(後生)은 도리어 좌선을 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망상을 피우고 있어서 어찌겠느냐?" 수좌가 말했다. "이 노인이 왜냐?" 황벽은 선판을 한 번 두드리고는 곧 나갔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③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문에 망상이라고 부른다. 선은 확고부동하고 불변하는 자리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경계가 딱지더라도 흔들리거나 휘말리지 않고 늘 여여부동할 수 있는 것이 선이다. 확고부동하고 불변

고도 말한다. 어떤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가오는 경계의 본성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성자리에 머물게 되면 안팎의 모든 경계가 본성 아닌 것이 없어서 흔들림

이 하나의 본성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본성은 본래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므로 얻거나 잃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모든 경계는 본성에 의하여 본성 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성은 다양한 경계의 모양에 오염되지

본성 확고하면 어떤 경계서도 여여

한 자리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달리 말해 어떠한 의식적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일러 '허공에 머문다' 고도 하고,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 없게 된다. 겉보기에 아무리 다양하고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모조리 본성 아님이 없으니 경계에 떨어가서 미혹에 빠지는 일은 없다. 본성 자리에 있으면 경계의 다양한 모양은 사라져 버리고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본성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않고 늘 깨끗하다. 그러므로 이 본성만 확인하면 온갖 다양한 경계 속에서도 늘 여여하고 답답할 수가 없다. 본성이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왜 우리는 늘 여여하고 답답하지 못하고 매순간 다가오는 경계에 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이리저리

플러다니는가? 그것은 스스로의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확고한 믿음이 없는가?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는가? 본분심(本分心)으로 망상을 내어 여러 가지로 조작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생각만 쉬면 본성은 늘 변함 없이 맑아서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적부터 익혀온 습관에 따라 늘 경계 위에서 경계의 모양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달리 확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본성이라는 모양을 확인하려고, 이른바 수행한다고 하는 여러 조작된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본성은 하등의 차이도 없다. 수행이라는 이름의 조작된 행위를 오히려 이러한 변함없는 본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위험이 있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이렇게 봤었다 잇단 총기강도 사건

富 正當한 노력으로 쌓아야

최근 은행 강도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살인강도 사건에 이어 4개월 동안 전국에서 4건의 총기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연쇄적이라 말해도 될 정도다. 8일 충남 서산 농협 현금수송차 탈취범들은 7억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한 순간에 거머쥐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은 나흘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재물은 생활을 영위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하며, 분에 넘치는 재물을 탐하는 것은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 富(富)는 정당한 노력으로 얻어야 하며 그 부를 널리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지게 한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화를 부른다든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 나무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만 그것들을 구하라. 부디 스스로 금 · 은 따위의 보물들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니주계경>

■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 모으기에만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두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을 그 몸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 <화엄경>

■ 욕심 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빈궁은 큰 고통이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을 받으니 고뇌가 된다. 빛쟁이는 찾아와 독축을 하고 그 때문에 끝내는 결박되나니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 <중야함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약사불 Bhaiṣaḡya Buddha (Medicine Buddha) 약사전 Hall of Medicine Buddha 미륵전 Hall of Maitreya Buddha 나한전 Disciples' hall

The hall of medicine buddha enshrines Bhaiṣaḡya Buddha who is the Universal Healer. He provides relief not only from disease and misfortune, but also from ignorance, which is the greatest ill to Buddhists. Bhaiṣaḡya Bodhisattva hold attribute objects. The alms bowl and the medicine bowl.

약사전에 모셔진 약사불은 만물의 치료자다. 그는 질병과 불행뿐 아니라 불자에게 있어 가장 큰 불행인 무지로부터 인류를 구원한다는 믿을 가지고 있다. 약사불은 특징적인 지물인 보시함과 약함을 들고 있다.

The Disciples' hall is called the nahan-jon. There statues representing specific enlightened disciples of the Buddha are to be found. The statues are usually made of wood and number between sixteen and 500 serious-looking men. Each statue represents a disciple of the Buddha who attained enlightenment and each one has an individual story.

나한전에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제자들이 모셔져 있다. 각각의 조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보통 다양한 모습을 한 16나한이나 500나한을 모시게 된다. 각 나한들은 저마다의 각기 다른 설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제자를 나타낸다.

기도 ·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념들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영불은 내생 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 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I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II 아미타불의 본원 III 염불의 공덕 IV 칭명염불 수행법 V 관상염불 수행법 VI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그한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저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시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지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로를 취위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정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목적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기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특별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